

신규 대졸자의 주요 집단별 고용 특성

남재량*

I. 머리말

청년 실업에 대한 그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은 청년 실업 및 고용에 대한 분석이 청년 전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남재량, 2011; 남재량, 2002)에 따르면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은 청년 전체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청년층 전체의 실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나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40%를 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은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신규 대졸자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가 신규 대졸자 전체에 대해 주로 분석하여 왔으므로 본고는 신규 대졸자 집단을 몇 가지 기준으로 보다 세분하여 이들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신규 대졸자를 대학 계열별로 구분할 경우 이들의 실업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시간에 걸친 변화는 과연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는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규 대졸 취업자들이 주로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대기업 취업자 수는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도 고용 및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은 신규 대졸자의 주요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아울러 성 및 대학 계열로 구분하여 신규 대졸자 노동시장을 살펴본다. 제III장은 취업상태에 있는 신규 대졸자들의 종사상 지위와 사업체 규모에 대해 알아본다. 제IV장은 이상을 정리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rnam@kli.re.kr).

II. 신규 대졸자의 성 및 대학 계열별 고용 특성

1. 신규 대졸자 전체

신규 대졸자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자. 본고에서 말하는 신규 대졸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졸업연도를 사용하여 당해 연도에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각년도 3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먼저 각년도 신규 대졸자 수를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각년도 3월에 파악 되는 당해 연도 신규 대학 졸업자 수는 표에서 보듯이 대체로 20만 명을 넘는 수준이며 연도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에 228천 명이 새로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며, 2011년 들어 262천 명이 대학을 신규로 졸업하고 있어 분석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다. 2011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는 시기로서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해이다. 실제로 2011년 1/4분기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신규 대졸자 수의 변동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신규 대졸자 수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3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신규 졸업자 수는 111천 명으로 전년동기의 99천 명에 비해 12천 명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도 60천 명으로 전년동기의 32천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호전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91천 명으로 4천 명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대졸자 증가분인 45천 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2003년에 50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의 91천 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업자와 실업자 수는 특별한 추세 없이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니트(NEET)를 비롯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신규 대졸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인 비경활률은 표에서 보듯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2003년 비경활률은 21.8%이나 2011년에 이르면 34.8%로 높아져 13.0%포인트나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2003~2005년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신규 대졸자 3월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 대졸자 수	228	238	227	215	194	243	222	217	262
취업자	132	121	111	94	98	109	91	99	111
실업자	46	51	37	50	29	47	51	32	60
비경제활동인구	50	66	79	71	67	86	79	87	91
실업률	25.8	29.4	24.9	35.0	23.2	30.3	36.0	24.2	35.0
고용률	58.0	51.0	49.0	43.6	50.2	45.0	41.2	45.6	42.4
비경활률	21.8	27.8	34.8	32.9	34.6	35.4	35.6	39.8	34.8

이제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을 보자. 2011년 3월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35.0%로서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전년동기의 24.2%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2003년 25.8%에서 출발하여 2011년 35.0%로 상승하고 있는데,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 추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실업률과 비경활률의 상승 추세와 달리 고용률은 지속적이며 강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03년에 고용률은 58.0%였으나 2011년에 42.4%로 감소하였다.

상승하여야 할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여야 할 비경활률과 실업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규 대졸자 노동시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2. 성 별

이제 신규 대졸자 노동시장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2>와 <표 3>은 각각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표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의 신규 대졸자 수는 그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2011년 들어 차이가 커졌으며 움직임도 크게 다르다. 즉 2010년 남자 신규 대졸자 수는 82천 명으로 분석기간 전체에서 가장 적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감소폭(28천 명)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 여자 신규 대졸자 수는 135천 명으로 분석기간 전체에서 가장 많으며 전년에 비해 24천 명이나 증가하였다. 즉 신규 대졸자 수에서 남자와 여자의 움직임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정반대의 움직임은 2011년에도 나타난다. 남자 신규 대졸자는 2011년 3월에 144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2천 명이나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118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7천 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엇갈리는 모습은 사실 이전에도 관찰된다. 남자와 여자 신규 대졸자의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한 쪽이

감소할 때 다른 쪽은 증가하는 모습이 많은 경우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성별로 반대되는 움직임은 취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자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모두 감소하고 이듬해에 증가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감소한다. 이에 비해 실업자에서 성별 규모와 움직임은 별로 다르지 않다. 2010년 실업자 수는 남녀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에 모두 증가한다. 다른 연도에도 남녀의 실업자 수와 그 움직임은 그리 다르지 않다.

실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업률의 수준과 변화도 성별로 그리 다르지 않다. 대체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움직임은 상당히 유사하다. 고용률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는 크지 않고 움직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남녀 모두의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 비경제활동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높다. 2011년 비경제활동률은 남성이 35.0%로 여성의 34.4%보다 오히려 높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도에서 여성 고용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높다. 아울러 남녀의 비경제활동률이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2> 신규 대졸자 3월 경제활동 현황: 남자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 대졸자 수	117	108	115	103	100	116	110	82	144
취업자	70	57	61	41	50	55	45	40	59
실업자	28	22	20	29	16	24	27	14	35
비경제활동인구	19	29	35	33	34	36	38	28	50
실업률	28.7	27.3	24.4	42.0	23.8	30.8	37.7	26.4	37.1
고용률	59.7	53.3	53.0	39.4	50.2	47.6	40.7	48.7	40.9
비경제활동률	16.2	26.7	29.9	32.0	34.2	31.3	34.7	33.8	35.0

<표 3> 신규 대졸자 3월 경제활동 현황: 여자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 대졸자 수	111	130	111	112	94	127	111	135	118
취업자	62	64	50	53	47	54	47	59	52
실업자	18	29	17	21	14	23	24	17	25
비경제활동인구	31	37	44	38	33	50	41	59	41
실업률	22.3	31.1	25.5	28.4	22.6	29.8	34.3	22.6	32.6
고용률	56.1	49.1	44.8	47.4	50.3	42.7	41.8	43.7	44.2
비경제활동률	27.8	28.6	39.8	33.8	35.0	39.2	36.4	43.5	34.4

3. 대학 계열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청년 노동시장 문제들을 높은 대학 진학률과 관련 시키고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여 매우 높아진 대학 진학률이 많은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졸 노동력의 구성 문제이다. 대학에서 주로 배출하는 인력과 시장에서 수요하는 인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많은 노동시장 문제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본고는 신규 대졸자를 계열별로 분류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학의 계열을 6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자연계열(농수산계열 포함), 공학계열, 그리고 의약계열이 그것이다.

먼저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일부 계열들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신규 졸업자를 다시 6가지 계열별로 구분하다보니 관측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들(표에서 ‘-’로 표시)도 있으나, 사범계열과 의약계열이 저실업률군에 속한다. 특히 사범계열의 실업률은 의약계열의 경우와 달리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8.6%와 12.3%로 매우 낮다. 나머지 계열들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실업률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10년과 2011년에도 가장 높다. 2011년 3월 공학계열 실업률은 무려 41.4%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계열별 고용률을 살펴보자. <표 5>에서 보듯이 의약계열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사범계열 고용률도 대체로 높다. 2011년 의약계열과 사범계열 고용률은 각각 54.4%와 53.8%로 50% 수준을 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계열의 고용률이 2003년에 비해 2011년에 더 낮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신규 대졸자 고용률 하락 추세가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표 4> 신규 대졸자의 계열별 실업률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문사회계열	27.4	35.0	23.2	30.6	28.8	24.9	37.9	24.2	33.4
예체능계열	20.1	35.1	22.3	51.8	12.6	44.3	24.6	23.3	31.4
사범계열	4.6	3.9	14.3	-	20.3	27.8	10.8	8.6	12.3
자연계열	13.9	38.5	27.9	39.4	27.2	26.9	45.5	16.4	37.3
공학계열	34.4	28.0	28.3	42.5	19.6	32.8	39.3	31.2	41.4
의약계열	5.9	4.0	27.4	35.4	-	26.1	9.9	23.8	35.5

<표 5> 신규 대졸자의 계열별 고용률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문사회계열	53.9	44.5	46.0	46.2	45.6	44.8	40.5	41.0	43.6
예체능계열	69.1	39.8	48.3	33.8	69.7	38.9	41.6	54.7	42.3
사범계열	87.3	67.5	51.6	61.7	45.9	37.6	49.7	33.2	53.8
자연계열	70.9	52.4	53.2	39.3	52.3	51.4	38.5	56.4	33.7
공학계열	51.0	54.4	49.9	39.0	54.0	45.8	39.6	45.2	41.0
의약계열	76.9	71.9	53.2	64.6	48.4	64.4	60.9	69.8	54.4

계열별 비경활률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의약계열의 비경활률이 가장 낮으며, 사범계열의 비경활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고 나머지 계열들의 비경활률은 대체로 유사하다. 의약계열은 비경활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상승 추세를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나머지 5가지 계열의 비경활률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인다. 앞에서 보았던 신규 대졸자 비경활률 증가 추세는 의약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의 비경활률 증가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 6> 신규 대졸자의 계열별 비경활률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문사회계열	25.8	31.5	40.0	33.4	36.0	40.4	34.9	45.9	34.5
예체능계열	13.5	38.6	37.8	29.8	20.2	30.3	44.9	28.7	38.4
사범계열	8.5	29.7	39.8	38.3	42.4	48.0	44.3	63.7	38.7
자연계열	17.6	14.8	26.3	35.1	28.1	29.7	29.4	32.6	46.2
공학계열	22.2	24.5	30.3	32.2	32.8	31.8	34.8	34.3	29.9
의약계열	18.2	25.2	26.6	-	51.6	12.8	32.4	8.5	15.7

III. 신규 대졸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 특성

이제 신규 대졸자 가운데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 종사상 지위

신규 대졸 취업자는 <표 7>에서 보듯이 상용직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2011년 3월 상용직에 종사하는 신규 대졸자는 68천 명으로 2003년의 69천 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가 2003년 132천 명에서 2011년 111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상용직의 비중은 52.0%에서 60.8%로 증가하였다. 반면 임시직은 2003년 35.2%에서 2011년 30.5%로 감소하고 있다. 일용직은 2011년 1.7%에 불과하나 2005년에 6.8%까지 상승한 적도 있어 등락이 크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매우 높다보니 신규 대졸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성되는 임금근로의 비중도 높다. 표에서 보듯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근로의 비중은 모두 90%를 넘으며 2011년의 경우 93.1%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근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비임금근로의 비중이 낮음을 의미한다. 비임금근로는 2003년 9.1%이며 2011년에 6.9%에 불과하다. 참고로 경제전체로 보면 2011년 3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구성비는 71.6%와 28.4%이다. 신규 대졸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므로 이를 구성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낮아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신규 대졸 취업자가 상용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파악할 수 있다. 신규 대졸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보다 자세한 언급이 가능할 것이다.

<표 7> 신규 대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자 수	임금근로	120	115	102	89	92	98	86	91	103
	상용직	69	70	65	53	58	69	53	56	68
	임시직	46	38	29	31	31	26	29	31	34
	일용직	5	6	8	5	3	3	4	4	2
	비임금근로	12	6	9	5	6	11	5	8	8
	전 체	132	121	111	94	98	109	91	99	111
구성비	임금근로	90.9	94.5	91.5	94.6	93.8	90.2	94.1	92.2	93.1
	상용직	52.0	57.7	58.2	56.1	59.1	63.6	57.8	56.8	60.8
	임시직	35.2	31.4	26.5	33.2	31.8	23.5	31.8	31.5	30.5
	일용직	3.7	5.3	6.8	5.3	2.9	3.2	4.5	3.9	1.7
	비임금근로	9.1	5.5	8.5	5.4	6.2	9.8	5.9	7.8	6.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사업체 규모

이제 신규 대졸 취업자들의 사업체 규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표 8>에서 보듯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신규 대졸 취업자 수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11년 300인 이상 규모에 취업한 신규 대졸자는 17천 명에 불과한데, 이는 2005년의 23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비중도 2005년 20.4%에서 2011년 15.4%로 하락하였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2011년 대졸자는 2011년 3월에 74.5%이며, 사업체 규모 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비중은 각각 17.4%, 18.2%, 17.5%, 18.5%, 12.9%이다. 그리고 취업자가 증가한 경우는 5~9인 및 30~99인 사업체이다.

신규 대졸자의 대기업 취업자 수 및 비중의 감소는 대기업을 신규 대졸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지만 대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을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노동수요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대기업을 신규 대졸 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대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 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표 8> 신규 대졸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단위: 천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 업 자 수	1~4인	22	15	10	21	13	27	19
	5~9인	12	16	13	17	14	11	20
	10~29인	23	13	17	25	26	18	19
	30~99인	17	23	25	16	20	17	21
	100~299인	15	8	16	8	6	9	14
	300인 이상	23	19	16	22	13	16	17
	전 체	111	94	98	109	91	99	111
구 성 비	1~4인	19.7	16.1	10.7	18.9	14.2	27.1	17.4
	5~9인	10.8	16.6	13.4	15.8	15.6	11.6	18.2
	10~29인	20.7	13.4	17.4	23.2	28.3	18.3	17.5
	30~99인	15.1	24.8	26.1	15.0	21.6	17.5	18.5
	100~299인	13.3	8.5	16.3	7.1	6.6	9.3	12.9
	300인 이상	20.4	20.7	16.0	20.0	13.7	16.3	15.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V. 맺음말

본고는 신규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신규 대졸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졸업자에 대한 분석은 체감 청년 실업과 공식 실업통계의 괴리를 메워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분석결과와 크게 달랐다. 본고는 당해 연도 졸업자의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연구(남재량, 201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상반기 졸업이 끝나고 난 후인 3월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3월 신규 대졸자 수는 26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취업자가 111천 명, 실업자가 60천 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9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5.0%로 매우 높았으며 고용률은 42.4%에 그쳤다. 나아가 신규 대졸자의 수는 변동이 커서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상승하여야 할 신규 대졸자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여야 할 실업률과 비경활률은 변동하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규대졸자 노동시장 지표들이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신규 대졸자 수의 변화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남자 신규 대졸자 수는 2010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주요 지표들을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범계열과 의약계열의 실업률이 낮았으며 공학계열은 2011년 3월에 무려 41.4%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고용률을 보면,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의 경우 2011년에 50%를 넘고 있으나 자연계열은 33.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 하락 추세는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비경활률은 의약계열에서 가장 낮았고 사범계열에서 높았으며 2011년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46.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비경활률의 상승 추세가 관찰되었다.

신규 대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에 이르면 60.8%를 기록한다. 임시직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에 30.5%를 차지하였다. 일용직의 비중은 미약한 정도이며 2011년에 1.7%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높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0%를 넘고 있다. 상용직 비중이 높고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신규 대졸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2011년 3월에 17천 명(15.4%)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 3월의 23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서 대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2011년에 94천 명이며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신규 대졸자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소기업 일자리 가운데 비어 있는 자리도 적지 않으므로 정부를 비롯한 각계는 중소기업의 비어 있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좋은 정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신규 대졸자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노동수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는 노력도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남재량(2011), 「체감 청년 실업률, 몇 %나 될까?」,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_____(2002), 「청년실업과 신규 졸업자 실업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